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 예술치료 연구동향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박윤미[†] · 정미현^{††}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예술치료 분야의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의 인터넷 중독의 예술치료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연구대상(연령, 성별, 실험 집단의 인원 수), 연구내용(예술치료 기법 수, 예술치료 기법 종류,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치료회기)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국내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예술치료, 인터넷 중독,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in Art Therapy for Internet Addiction in Korea: from 2000 to 2015

Yun-Mi Park[†] · Mihyun Ch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s of art therapy as a mean to apply it for treatment of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nd additionally provides insights to prevent this disorder through art therapy. For this purpose, we have investigated the art therapy based internet addiction treatment researches published in South Korea from 2000 to 2015. The analyzing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modification of previously published domestic researches covering the following 3 criteria: research objects (age, gender,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search subjects (single technique numbers, single technique types, study area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s (research type, research design, measurement method, treatment period). Based on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we have proposed variou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art therapy to treat internet addiction with higher efficiency.

Keywords : Art Therapy, Internet Addiction, Research Trends

† 정 회 원: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조교수
†† 중신회원: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10월 5일, 심사완료: 2015년 10월 26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18일

1. 서론

오늘날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급속한 증가는 지식격차, 저작권 침해, 정보도용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1],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면 통제력 상실, 극심한 기분변화, 내성과 금단증상, 사회 및 학교생활에의 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2][3].

Goldberg(1995)가 최초로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4]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중독의 폐해에 대한 관심으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적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연구자들과 각국의 정부는 인터넷 중독의 폐해와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관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를 육성하고 연계병원체계를 확립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5],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져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치료 영역에서도 인터넷 문제에 관해 일련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예술치료는 정신과 신체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원,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표현 예술 활동으로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고 치료과정에서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며 내담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가운데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는 치료영역이다[6]. 또한 사용하는 예술매체에 따라 여러 영역들로 구분되며, 각 치료는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치료 접근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술매체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이 있으며,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창작활동을 통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 표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부담스럽지 않게 무의식을 끌어

내어 외상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7],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9][10][11][12]. 음악치료도 잠재수준이나 무의식 수준을 의식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식을 고양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13], 인터넷 중독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4][15]. 또한 연극치료는 역할을 맡고 수행하는 주체인 내담자의 정신적 치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집단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극적 현실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내면을 표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인터넷 중독에 있어 치료적 효용성을 갖는다[16]. 그 밖에 문학치료는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 화해되지 못한 거절의 기억이나 억압의 기억을 찾아내어 그 때의 밀쳐놓았던 감정들을 꺼내어 조정,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중독을 치료한다[8].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가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등 핵심적 부분은 여전히 모호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다[5]. 국내 예술치료의 영역에서는 예술치료를 통한 상담과 개입으로 인터넷 중독의 문제에 대한 예술치료의 치료적 효과를 밝히는 사례연구[8][9][10][11][12]가 대부분으로 인터넷 중독의 치료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체의 다양화, 연구방법론 확대 적용 등이 요구된다. 연구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미비한 연구분야를 파악하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쟁점과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5년 간(2000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의 연구 동향을 연구 대상(연령, 성별, 실험 집단 원 수), 연구내용(예술치료 기법 수, 예술치료 기법 종류, 연구영역, 연구주체), 연구방법(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치료회기) 등의 세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 연구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국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학위논문과 등재 학술지에 수록된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의 구체적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으로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한다.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제한하며, ‘성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둘째,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예술치료에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술치료’는 예술양식과 창조적 과정이 건강과 소통, 표현을 증진하기 위해 치료, 재활, 사회 또는 교육 상황에 개입됨으로써 신체, 감정, 인지와 사회적 기능의 통합을 도모하고 자기 인식과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18] 본 연구에서는 미술, 음악, 동작/무용, 연극, 문학치료 등 한 가지 이상의 예술 매체를 적용하는 형태의 치료로 규정한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자료 범위는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 논문(등재지)과 학위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국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1차로 학술연구정보(RISS)의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어로 ‘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문학치료’와 ‘인터넷’, ‘인터넷 중독’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 수집하였다. 2차로 1차 수집된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연구자료를 확인 및 검토하기 위하여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원(KISS), 학술교육원(Earicle), 학지사 뉴논문 등에서 자료를 각각 수집하여 비교, 검토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될 경우 학술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위논문은 제외하였

다. 특히 1차 자료 수집 시, 박사학위 논문은 총 2편이 수집되었으나 모두 학술지와 중복되어 제외되었다. 분석 자료로 최종 선정된 논문은 국내 학술지 14편, 학위논문(석사) 29편으로 총 43편이다.

<표 1> 학술지별 논문 편수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미술치료연구	3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
상담학연구	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
예술심리치료연구	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
청소년시설환경	1	한국예술연구	1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
계: 14			

<표 2> 대학별 학위논문 편수

대학	편수	대학	편수
건국대학교	1	순천향대학교	1
광주여자대학교	1	연세대학교	1
대구대학교	1	영남대학교	2
동국대학교	4	원광대학교	1
명지대학교	2	이화여자대학교	3
서울교육대학교	1	조선대학교	1
서울신학대학교	1	평택대학교	1
서울여자대학교	3	한남대학교	1
숙명여자대학교	1	한양대학교	3
계: 29			

2.2 분석기준

분석기준은 선행연구들의 분류기준[5][6][19]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연도별 연구동향과 연구 대상(연령, 성별, 실험 집단원 수), 연구내용(예술치료 기법 수, 예술치료 기법 종류,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치료회기)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 버전과 MS Excel 2010 버전을 사용하여 연도별 논문 발표 수와 논문에 사용된 연구 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분석기준

기준	세부 분석 기준	
연구 대상	연령	아동, 청소년, 성인
	성별	남, 여, 혼합
	실험 집단원 수	1명, 2~5명, 6~10명, 11~20명, 20~50명, 50~100명, 100명이상
연구 내용	예술치료 기법 수	1개, 2개, 3개, 4개
	예술치료 기법 종류	명상치료, 문학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음악치료, 집단표현예술치료
	연구영역	인터넷중독일반, 인터넷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인터넷중독기타
	연구주제	개관연구, 검사도구연구, 관련변인연구,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개발연구
연구 방법	연구유형	양적분석(기초통계, 변량분석, 상관분석)
		질적분석
		통합적분석(양적분석+질적분석)
	연구설계	실험비교집단, 실험집단
	측정방식	사전·사후, 사전·사후·추후
	치료 회기 분석	치료주기
구성회기		1~12회기, 13~24회기, 25회기 이상
회기별 시간		50분 미만, 50~60분 미만, 60~70분 미만, 70~80분 미만, 80~90분 미만

3.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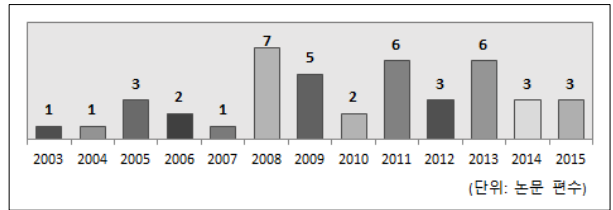
3.1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논문 발표 수에 대한 분석은 <표 4>와 같다. 학술지는 2004년, 2007년, 2014년을 제외하고 2003년 1편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편~3편씩 진행되었다. 학위논문은 학술지로 발표된 논문이 제외되어 박사학위논문은 전무하며, 석사학위논문만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연도별 연구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까지 1~2편씩 진행되던 연구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연도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2003	1(7.14)	-	1(2.33)
2004	-	1(3.45)	1(2.33)
2005	1(7.14)	2(6.90)	3(6.98)
2006	1(7.14)	1(3.45)	2(4.65)
2007	-	1(3.45)	1(2.33)
2008	2(14.29)	5(17.24)	7(16.28)
2009	1(7.14)	4(13.79)	5(11.63)
2010	1(7.14)	1(3.45)	2(4.65)
2011	1(7.14)	5(17.24)	6(13.95)
2012	3(21.43)	-	3(6.98)
2013	2(14.29)	4(13.79)	6(13.95)

2014	-	3(10.34)	3(6.98)
2015	1(7.14)	2(6.90)	3(6.98)
계	14(100)	29(100)	43(100)



<그림 1> 연도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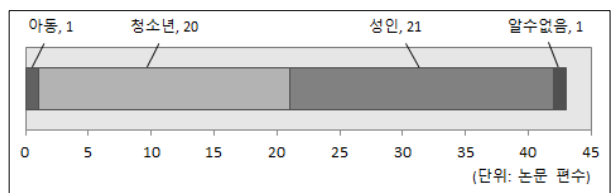
3.2 연구대상별 연구동향

3.2.1 연령별

연령별 연구대상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 총 14편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무하며, 청소년 7편(50%), 성인 7편(50%)으로 확인되었다. 학위논문에서는 총 29편 중 아동이 1편(3.45%), 청소년이 13편(44.83%), 성인이 14편(48.287%)이었으며, 연구대상의 연령을 밝히지 않은 논문이 1편(3.45%)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연구대상 연령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아동	-	1(3.45)	1(2.33)
청소년	7(50.00)	13(44.83)	20(46.51)
성인	7(50.00)	14(48.28)	21(48.84)
알 수 없음	-	1(3.45)	1(2.33)
계	14(100)	29(100)	43(100)



<그림 2> 연구대상 연령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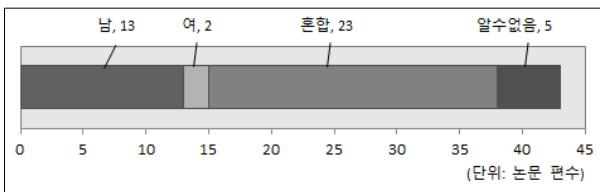
3.2.2 성별

성별 연구대상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는 남성 5편(35.71%), 남녀 혼합 8편(57.14%)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전무하며, 학위논문 역시 남성 8편(27.59%), 여성 2편(6.90%), 남녀 혼합 15편(51.72%)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성별을 알 수 없는 논문이 학술지 1편(7.14%), 학위논문 4편(13.79%)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연구대상 성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남	5(35.71)	8(27.59)	13(30.23)
여	-	2(6.90)	2(4.65)
혼합	8(57.14)	15(51.72)	23(53.49)
알 수 없음	1(7.14)	4(13.79)	5(11.63)
계	14(100)	29(100)	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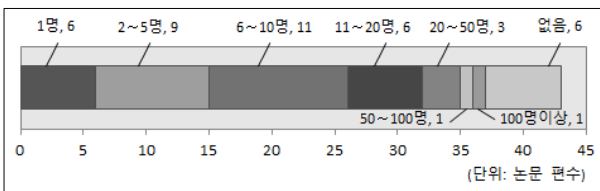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대상 성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2.3 실험 집단원 수

실험 집단원 수별 연구대상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6~10명을 실험 집단원 수로 진행한 연구가 5편(3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논문에서는 2~5명을 실험 집단원 수로 진행한 연구가 9편(31.03%)으로 가장 많았다.

<표 7> 실험 집단원 수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1명	2(14.29)	4(13.79)	6(13.95)
2~5명	-	9(31.03)	9(20.93)
6~10명	5(35.71)	6(20.69)	11(25.58)
11~20명	3(21.43)	3(10.34)	6(13.95)
20~50명	2(14.29)	1(3.45)	3(6.98)
50~100명	-	1(3.45)	1(2.33)
100명이상	-	1(3.45)	1(2.33)
없음	2(14.29)	4(13.79)	6(13.95)
계	14(100.00)	29(100.00)	43(100.00)



<그림 4> 실험 집단원 수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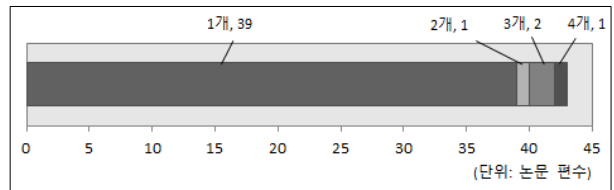
3.3 연구내용별 연구동향

3.3.1 예술치료 기법 수

예술치료 기법 수별 연구대상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기법 한 가지를 적용한 연구가 12편(85.71%)이었으며, 세 가지를 통합한 연구가 2편(14.29%)이었다. 학위논문에서도 기법 한 가지를 적용한 연구가 27편(9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가지 또는 네 가지를 통합한 연구가 각 1편(3.45%)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비율 역시 기법 한 가지를 적용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39편(90.70%)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예술치료 기법 수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1개	12(85.71)	27(93.10)	39(90.70)
2개	-	1(3.45)	1(2.33)
3개	2(14.29)	-	2(4.65)
4개	-	1(3.45)	1(2.33)
계	14(100)	29(100)	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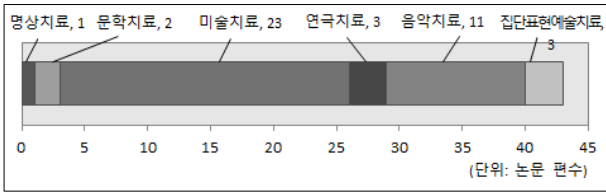
<그림 5> 예술치료 기법 수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3.2 예술치료 기법 종류

예술치료 기법 종류별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음악치료를 사용한 연구가 5편(35.71%), 미술치료를 사용한 연구가 4편(28.57%)으로 집중 적용되었다. 학위논문에서는 미술치료가 19편(65.52%)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으며, 이어 음악치료 6편(20.69%)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비율로는 미술치료를 사용한 연구가 23편(53.49%)으로 가장 많았다.

<표 9> 예술치료 기법 종류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명상치료	1(7.14)	-	1(2.33)
문학치료	2(14.29)	-	2(4.65)
미술치료	4(28.57)	19(65.52)	23(53.49)
연극치료	1(7.14)	2(6.90)	3(6.98)
음악치료	5(35.71)	6(20.69)	11(25.58)
집단표현예술치료	1(7.14)	2(6.90)	3(6.98)
계	14(100)	29(100)	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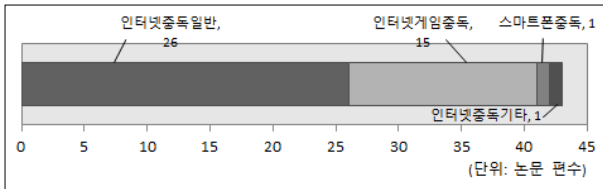
<그림 6> 예술치료 기법 종류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3.3 연구영역

연구영역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인터넷 중독일반’과 ‘인터넷게임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7편 (50.00%)으로 동일하였다. 학위논문에서는 ‘인터넷 중독일반’ 관련 연구가 19편(65.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터넷게임중독’이 8편(27.59%)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비율로는 ‘인터넷중독일반’에 관한 연구가 26편(60.47%)으로 가장 많았다.

<표 10> 연구영역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인터넷중독일반	7(50.00)	19(65.52)	26(60.47)
인터넷게임중독	7(50.00)	8(27.59)	15(34.88)
스마트폰중독	-	1(3.45)	1(2.33)
인터넷중독기타	-	1(3.45)	1(2.33)
계	14(100)	29(100)	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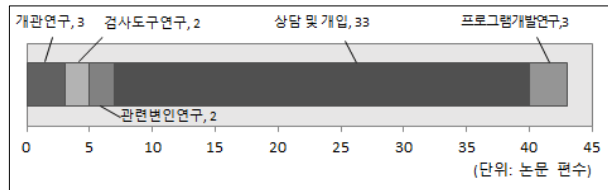
<그림 7> 연구영역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3.4 연구주제

연구주제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상담 및 개입’과 관련된 연구가 12편(8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관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연구’가 각 1편(7.14%)으로 확인되었다. 학위논문 역시 ‘상담 및 개입 연구’가 21편(72.41%)으로 가장 많았고, ‘개관연구’, ‘검사도구연구’, ‘관련변인연구’, ‘프로그램개발연구’ 등이 각 2편(6.90%)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비율은 상담 및 개입에 관한 연구가 33편(76.7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개관연구	1(7.14)	2(6.90)	3(6.98)
검사도구연구	-	2(6.90)	2(4.65)
관련변인연구	-	2(6.90)	2(4.65)
상담 및 개입	12(85.71)	21(72.41)	33(76.74)
프로그램개발연구	1(7.14)	2(6.90)	3(6.98)
계	14(100)	29(100)	43(100)



<그림 8>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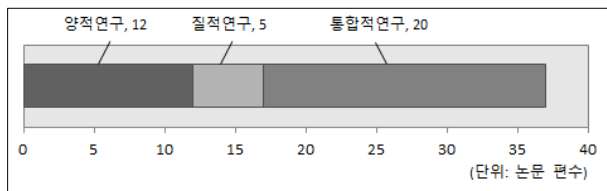
3.4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3.4.1 연구유형

연구유형 동향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는 개관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연구 6편은 집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병행된 연구는 통합적연구로 표현하였다. 학술지에서는 통합적연구 6편(50.00%)과 양적연구 5편(41.67%)으로 질적연구가 미미하였으나 학위논문에서는 통합적연구 14편(56.00%) 외에 양적연구 7편(28.00%), 질적연구 4편(16.00%)으로 좀 더 다양한 연구유형을 보였다. 전체적인 비율로는 통합적연구가 20편(54.05%)으로 가장 많았고, 양적연구가 12편(32.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2> 연구유형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양적연구	5(41.67)	7(28.00)	12(32.43)
질적연구	1(8.33)	4(16.00)	5(13.51)
통합적연구	6(50.00)	14(56.00)	20(54.05)
계	12(100)	25(100)	3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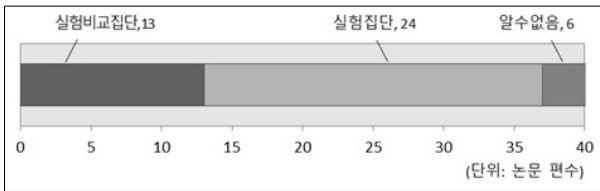
<그림 9> 연구유형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4.2 연구설계

연구설계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실험비교집단을 참여시킨 논문과 실험집단만을 참여시킨 논문이 각 6편(42.86%)으로 확인되었다. 학위논문에서는 실험집단만을 참여시킨 논문이 18편(62.07%)으로 주를 이루다. 전체적인 비율로는 실험집단만을 참여시킨 논문이 24편(55.81%)으로 가장 많았다.

<표 13> 연구설계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실험비교집단	6(42.86)	7(24.14)	13(30.23)
실험집단	6(42.86)	18(62.07)	24(55.81)
알 수 없음	2(14.29)	4(13.79)	6(13.95)
계	14(100)	29(100)	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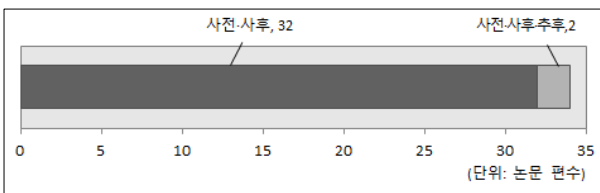
<그림 10> 연구설계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4.3 측정방식

측정방식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으며,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는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학술지에서는 사전·사후를 비교하는 논문이 10편(83.33%)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학위논문 또한 사전·사후를 비교하는 논문이 22편(100%)로 확인되었다.

<표 14> 측정방식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사전·사후	10(83.33)	22(100)	32(94.12)
사전·사후·추후	2(16.67)	-	2(5.88)
계	12(100)	22(100)	3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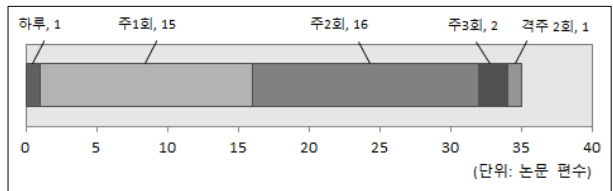
<그림 11> 측정방식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4.4 치료주기

치료주기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주 1회가 7편(5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논문에서는 주 2회가 13편(56.52%)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인 비율로는 주 2회 16편(45.71%), 주 1회 15편(42.86%)로 확인되었다.

<표 15> 치료주기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하루	1(8.33)	-	1(2.86)
주1회	7(58.33)	8(34.78)	15(42.86)
주2회	3(25.00)	13(56.52)	16(45.71)
주3회	-	2(8.70)	2(5.71)
격주 2회	1(8.33)	-	1(2.86)
계	12(100)	23(100)	3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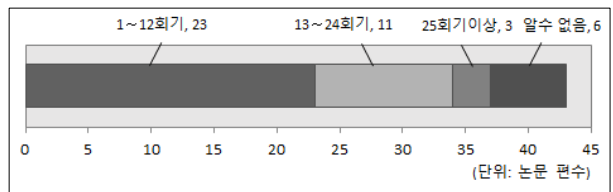
<그림 12> 치료주기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4.5 구성회기

치료 프로그램의 구성회기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12회기 이내가 9편(64.29%)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학위논문 역시 12회기 이내가 14편(46.67%), 13~24회기 이내가 9편(30.00%)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비율 역시 12회기 이내가 23편(52.27%)로 가장 많았다.

<표 16> 프로그램 구성회기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1~12회기	9(64.29)	14(48.28)	23(53.49)
13~24회기	3(21.43)	8(27.59)	11(25.58)
25회기 이상	1(7.14)	2(6.90)	3(6.98)
알 수 없음	1(7.14)	5(17.24)	6(13.95)
계	14(100)	29(100)	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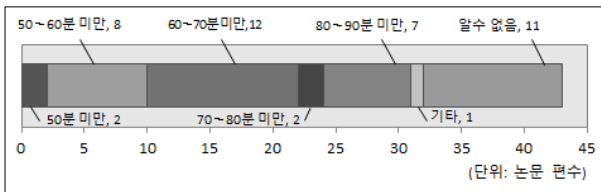
<그림 13> 프로그램 구성회기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3.4.6 1회기 시간

1회기의 시간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80~90분 미만이 5편(3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논문은 60~70분 미만이 10편(34.48%)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비율은 60~70분 미만이 12편(27.91%)으로 가장 많았다.

<표 17> 1회기의 시간별 연구동향

구분	학술지(%)	학위논문(%)	계(%)
50분 미만	1(7.14)	1(3.45)	2(4.65)
50~60분 미만	1(7.14)	7(24.14)	8(18.60)
60~70분 미만	2(14.29)	10(34.48)	12(27.91)
70~80분 미만	-	2(6.90)	2(4.65)
80~90분 미만	5(35.71)	2(6.90)	7(16.28)
기타	1(7.14)	-	1(2.33)
알 수 없음	4(28.57)	7(24.14)	11(25.58)
계	14(100)	29(100)	43(100)



<그림 14> 1회기의 시간별 연구동향 그래프(전체)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의 전반적인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의 다양한 치료 방안 중 하나로써 예술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였으며, 분석 자료로 최종 선정된 논문은 학술지 14편, 학위논문 29편으로 총 43편이었다. 선정된 논문들을 연구대상(연령, 성별, 실험 집단원 수), 연구내용(예술치료 기법 수, 예술치료 기법 종류,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연구유형, 연구설계, 측정방식, 치료회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어

연구 주제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며, 예술치료가 임상심리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문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연령대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으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유아동이 5.6%(143천명)로 청소년 12.5%(768천명)이나 성인 5.8%(1,711천명)에 비해 낮으나 미취학 아동의 중독위험군 비율은 4.4%로 전년(3.4%) 대비 증가하였고, 고위험군(0.6%)도 전년(0.2%) 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11.9%)이 여성(10.5%)에 비해 중독위험군 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청소년 여성 중독위험군은 29.9%로 청소년 남성(28.6%)보다 높다[20]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대상 범주별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필요성을 나타낸다. 특히 예술치료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험 집단원 수별 연구대상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6~10명을 실험 집단원 수로 진행한 연구가 5편(3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논문에서는 2~5명을 실험 집단원 수로 진행한 연구가 9편(31.0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심리치료가 긴밀한 치료자와의 친숙함을 필요로 하는 치료적 환경이 요구됨을 반영한다.

셋째, 연구내용의 연구동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용한 예술치료의 기법수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기법 한 가지를 적용한 연구가 학술지 12편(85.71%), 학위논문 27편(93.1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법의 종류 동향 분석결과 미술치료를 적용한 연구가 학술지 4편(28.57%), 학위논문 19편(65.62%)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치료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가 선호하거나 거부하는 매체는 다양하므로 치료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매체의 적용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치료기법 및 기법의 통합적 접근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연구영역 동향의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인터넷중독일반’과 ‘인터넷게임중독’과 관련된 연구가 7편(50.00%)으로 동일하였으며, 학위논문에서는 ‘인터넷중독일반’ 관련 연구가 19편(65.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터넷게임중독’이 8편(27.59%)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주제 동향의 분석결과로는 ‘상담 및 개입’과 관련된 연구가 학술지 12편(85.71%), 학위논문 21편(72.41%)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중독, 음란물중독, 도박중독 문제가 커지고 있어[5] 특정 중독에 대한 이해와 중독 유형별 예술치료의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도구로서 예술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의 개시 및 유지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 및 보다 효과적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의 연구동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유형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와 학위논문 모두 질적연구에 대한 비율이 현저히 낮았으며, 연구설계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실험비교집단을 참여시킨 연구와 실험집단만을 참여시킨 논문이 각 6편(42.86%)로 동일하였으나 학위논문에서는 실험집단만을 참여시킨 논문이 18편(62.07%)으로 주를 이루어 차이를 보였다. 측정방식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는 사전·사후를 비교하는 논문이 학술지와 학위논문 각각 10편(83.33%), 22편(100%)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치료주기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주 1회가 7편(58.33%), 학위논문에서는 주 2회가 13편(56.52%)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 구성회기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는 12회기 이내가 학술지 9편(4.29%), 학위논문 14편(48.28%)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회기별 시간에 대한 동향 분석결과 학술지에서는 80~90분 미만이 5편(35.71%), 학위논문은 60~70분 미만이 10편(34.48%)으로 주를 이루었다.

이근매와 장성숙(2013)이 치료회기의 다양화를 통해 종속변인이나 환경에 맞는 치료 회기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20]한 바와 같이 향후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예술치료의 적용에 있

어 치료주기, 구성회기, 회기별 치료시간의 근거를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추후 검사를 통해 치료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 중독위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 [21][22]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가와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무처에서 발표한 ‘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에도 중독유형별 상담(치유)-치료연계 강화 계획으로 다양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고, 지역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에서 미술치료 등의 다양한 예술치료의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예술치료의 실제 적용의 범위도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예술치료의 적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술치료 연구동향 분석을 통하여 예술치료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도구로서 예술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인경, 양소정(2011).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심층인터뷰를 이용한 20대 후반 여성 인터넷 중독자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언론*, 14, 157-199.
- [2]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 Creek,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3] Griffiths, M.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some comments on addicted use of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 [4] Goldberg, I. (1995), *IASG(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 Official Criteria*.

[5] 장재홍, 김광현(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6] 박현주, 김영희(2013). 예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85-203.

[7] Kramer, E. (2000). *Art as therapy: Collected papers*. London: Jessica Kingsley.

[8] 김성범(2015).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학생의 인터넷 중독 감소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9(3), 185-203.

[9] 여정운(2010).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개별 음악치료 사례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1), 16-40.

[10] 최선남(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6(2), 189-210.

[11] 정여주(2008). 통합예술치료가 인터넷중독 고교생의 인터넷 사용조절과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5(3), 555-570.

[12] 정동영(2005). 미술치료가 인터넷게임 중독아동의 주의집중력 대인관계 및 자기조절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2(2), 355-381.

[13] 오승진·류정미(2011). 집단미술치료가 만성정신질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2), 128-144.

[14] 김학범(2012). 인터넷 중독 범죄에 대한 음악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4), 65-87.

[15] 차은선(2011). **집단 음악치료가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자기통제, 사회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6] 이경숙·박희석(2008). 연극치료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1), 303-325.

[17] 허혜리, 장현아(2013). 외상 경험자를 위한 국내 예술치료 연구 동향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9(4), 243-266.

[18] 백양희, 김현정(2014). 경도 지적장애 청소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예술치료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0(4), 1-30.

[19] 송수경(2014). 청소년 대상 예술치료 연구 동향-최근 10년을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155-179.

[20] 이근매, 장성숙(2013). 청소년의 문제행동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9(4), 395-418.

[21] 한국정보화진흥원(2015).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2] 범부처(2015). **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박 윤 미

2005 한양대학교 미술학사
 2008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미술치료전공)
 2014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미술교육전공)

2014~2015 정담심리클리닉 센터장
 2015~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미술치료, 미술교육
 E-Mail: pym@cha.ac.kr



정 미 현

20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사
 200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전자계산교육전공)
 2010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컴퓨터교육)

2003~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공공기관 및 기업
 IT활용 직무연수 강사
 2005~현재 국가기술자격 출제·감수·자문위원
 2013~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조교수
 2014~현재 차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장
 관심분야: 직무분석, 컴퓨터교육, 이러닝
 E-Mail: eduforest@cha.ac.kr